

# 고서화에 나타난 명승유연<sup>†</sup>

이원호\* · 허복수\* · 신현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금풍조경

## I. 서론

우리나라는 자연지형이 다양하고 산수가 수려한 곳이 많아 예로부터 이를 찾은 우리 선조들은 시나 서화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남기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그 속에서 여생을 즐기거나 은둔하여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명승들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이상을 펼치는 중요한 장소로서 기능해 왔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산수경관으로 불리기도 하였던 명승은 뛰어난 자연경관에 인문적 요소가 내재된 복합경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을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유산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명승의 개념이 확장되고 지정건수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최초 지정시기인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지정건수가 총 7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06년 명승정책 활성화 사업에 힘입어 2007년에 11건, 2008년 21건 등 총 51건이 지정되었고, 2010년 11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은 제73호인 태백 검룡소를 포함하여 총 7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70년에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된 후, 몇 년 전만 해도 지정건수가 불과 30건에 머문 것에 비하면 급격한 지정 증가 추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명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해방 바로 전의 일<sup>1)</sup>이다. 그러나 그동안 명승분야는 정책기반형성을 위한 토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지정건수의 증가와 국민적 관심은 지정기준 및 보존관리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돌아볼 때, 명승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한국명승의 정체성 구현 및 가치정립을 위한 기초작업인 한국명승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분야인 역사, 고문헌, 회화, 조경, 건축 등에서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명승은 한·중·일 동양 3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의 개념으로 문화와 사상적 교류가 활발했던 인접 문화권의 영향에 대한 상호비교도 이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와 낙후된 시설의 근대화를 위해 아름다운 자연과 명승지들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유산들이 소실되고 회복 불능에 이르는

곳이 많으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도 과도한 관광시설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어 원형회복이 어렵거나 이에 불가능한 곳도 대다수이다. 또한, 국립공원과 같이 타기관과 중복 지정되어 관리되는 곳은 명승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곳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명승의 실체를 살펴보는 유용한 재료로 고서화를 중심으로 하여 조상들의 명승 관련 행태와 그 기록을 추적함으로써 명승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훼손된 명승의 모습을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문화적 측면을 부각하여(조한욱, 2000) 재정리하고 간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필수요소를 추출·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명승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명승이 지닌 포괄적 개념성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 차원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금번 연구에서는 명승유연의 개념을 위주로 고문헌 및 그림을 중심으로 명승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명승유연을 중심으로 명승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관련 고서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관련 고문헌과 선행연구 등을 광범위한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으로는 명승유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임원십육지의 명승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그림으로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김홍도 등에서 시작하여 계획에 관한 연구, 중국의 노장사상에 이르기까지 명승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분석이 행해졌다. 연구의 전개로 자연경관과 사상적 측면에서는 중국사상에 관한 이론과 연구 등을 살펴보고, 명승유연의 개념은 관련 논문과 고서화를 통해 그 실체를 고찰하였으며, 명승과 관련된 행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시서화 등 기본적 창작활동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행태를 분류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자연경관과 사상

산수경관으로 불리는 동양 자연경관의 특징은 서양의 압도

<sup>†</sup>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0 명승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 구축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적인 경관과는 다른 인간적 스케일에 의해 완성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과 계류를 통해 형성되는 산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전통조경학회, 2009). 또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공자의 격물치지와 결부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자연경관과 사상을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되고 자연이 사상이고 사상이 자연으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취미는 사대부 문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동양문화권의 정신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이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는(서신혜, 2010) 과정에 명승과 같은 자연경관과 그에 내재된 사상이 그 모티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무릉도원에 대한 의미는 경승지의 이상적 표현이기도 하였다. 옛선조들의 이상향을 가리키는 용어 중 복지<sup>2)</sup>, 동천<sup>3)</sup>, 낙토, 선경 등은 현세의 실제적 경관에서 비롯된다. 또한 노자의 자연에 대한 사상에 힘입어 명승을 대상으로 한 호산수는 은둔의 성격을 변화시키게까지 되었다(3장에서 자세히 기술).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양식은 각기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는 원리를 고려해 보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선호하고 즐기게 된다는 당연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 조상들의 빈부 격차를 막론한 호산수에 대한 경향과 경관의식을 나타내는 외국인의 몇몇 기록<sup>4)</sup>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 조상들의 명승유연의 취미는 사상적 측면과 병행하여 우리 국토의 승경이 빚어낸 신분을 초월한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명승유연의 개념

명승유연(名勝遊衍)은 서유구의 임원십육지에 등장하는 조상들의 자연경관 즉 명승에 대한 행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선비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주로 언급한 이운지 권 제8에 명승유연조<sup>5)</sup>에 언급된 것이다. 명승유연은 19세기 초까지도 선비가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관습으로 인식되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명승을 기행하고 그를 사경하는 관습을 통해 진경산수화가 발달하기도 하였다(박은순, 1999). 이렇게 탐승을 즐기고, 그 견문을 시서화로 표현하는 것은 18세기 이래로 문인문화의 중요한 국면이 되었다, 그 결과 기행사경 서화첩이 꾸준히 제작되었고(박은순, 1999), 이를 통해 과거 명승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명승유연의 행태는 회화와 문헌기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려할 점은 검재정선의 진경산수와 같은 경우는 실경산수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림에 내재된 관념적 특성에 대한 명승차원의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김홍도의 기로세련계도의 경우, 고려시대의 만월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계획도로 당시 멸실된 유적에서의 대규모 모임으로 오늘날 명승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면상 기타 사례들은 발표 자료에 수록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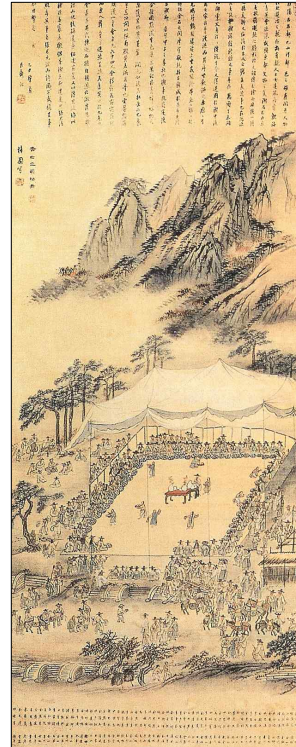


그림 1 김홍도의 기로세련계도  
출처: 개인소장.

## 3. 명승유연의 대상: 구곡과 팔경

시문과 그림 등에 나타나는 유교문화와 관련된 대표적 명승으로는 구곡경관이 있다. 구곡은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으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유교문화경관의 대표적 사례이다.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權歌)는 무이산 계곡 주변의 아름다운 명승지인 구곡의 절승처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된 구곡은 조선조 유교문화의 융성과 함께 우리나라 산하의 경관에 부여된 문화요소이다. 이러한 구곡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구곡은 각각 절승의 장소로서 하나 하나의 경관점들이 연계되어 연계경관(sequence)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구곡의 명명과 함께 당시에 그들이 구곡경관을 보고 느꼈던 감상을 문자로 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암각으로 각자하거나 경관시를 지어 편액과 고문헌 등으로 전하고 있다(김학범, 2009). 구곡 이외에도 팔경은 넓은 지역의 절경을 설정하여 명명하고 있는데, 팔경 역시 대표적인 절승의 경관점이라 할 수 있다. 경의 설정은 팔경, 십경, 십이경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팔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학범, 2000). 무신정권기에 문학에서 유입되기 시작한 팔경시는 무신 지배하에 불만을 삭이고 문(文)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팔경시를 짓고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팔경시는 현실에서 떨어진 산수, 인공의 요소가 없는 천연의 경관이야 말로 경승이며 산수시는 경승을 읊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발전되는데 혼탁한 시대 탓으로 은둔의 정당성을 높이고 대상 경관에 대한 칭송과 문장에 대한 자랑 수단으로 쓰였는데, 이런 시기에 중국 소상팔경시를 비롯한 팔경시의 유행은 국내 확산에 기록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적이 처음 그렸다는 소상팔경은 중국에 원류가 존재한다(이태호, 2010).

#### 4. 명승유연의 행태

##### 1) 계획

예로부터 각종 모임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겨 기록하는 일은 오랜 역사를 지닌 창작행위였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다양한 유형의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남겼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러한 기록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송희경, 2008). 이러한 모임에서는 작시, 탄금, 위기, 서화제작 및 감상, 전다, 음주 등을 통한 예술의 장이기도 하였다(송희경, 2008). 풍류를 즐기 위한 모임을 ‘아회’, ‘아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명승과 관련 있는 계획은 최치원의 ‘난랑비서’에서 화랑의 풍류도와 연관된다. 전인적 인격체를 목표로 하는 풍류도는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놀이문화’를 통해 완성된다(민주식, 1986). 풍류는 노는 것이되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노는 것이고 장소는 자연만물로 삼라만상과 교유하는 곳이었다.

##### 2) 기행

명산에서 유락하는 것은 은둔의 한 풍조이며, 성리학적 심신수양을 위한 선비들의 주요한 행태중 하나였다. 문인들은 국내 명승지 방방곡곡을 기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고 평생의 바램이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산수화 작품 활동도 활발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산기 등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화가들은 조선의 아름다운 산하, 곧 우리나라의 명승을 즐겨 화폭에 담았다. 화가들은 일생을 걸쳐 명승지를 그리기 위한 여행을 감행하는데 겸재 정선은 36세와 72세에 금강산을 그리기 위해 기행하였으며, 김홍도와 김응환도 정조의 배려로 금강산을 기행하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 또한 기행문에서는 명망 있는 선대의 여정을 후대가 그대로 답습하며 기록하는 포물라가 유행하게 된다. 불행히도 정선 이후에 강세황, 강희언, 김하종 등 본격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진경산수화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최석태, 2001). 명승은 문인들의 기행과 사경관습을 통해 꾸준히 문학과 서화로 표현되면서 한국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박은순, 1999).

##### 3) 은둔

중국 후한의 작품인 초은사에는 산야는 고난으로 가득 찬 장소로 묘사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난 은둔은 고행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산수지락의 의미와 같이 산수애호 인식이 선호되면서 명승지에서의 산수은둔이 성행하게 된다. 이는 노자가 유산수즉, 산수에서 소요하다는 의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 그대로인 장소에 도가 존재한다고 보아 명승지에서 소요하는 중요한 이유는 도를 체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즐거워하고 몸을 맡기는 것 자체에도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도의 체득에 아울러 상완적 의미<sup>6)</sup>와 쾌락적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난정고사의 유상곡수연 또한 서문에서 산수가 운대에서 소요하고 유락함으로 무위자연, 노장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소요의 대상도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장소임을 기리고 있다(Obi kouichi 윤수영, 1988). 이러한 노장사상이 발달하면서부터 과거의 부정적 도피가 아닌 유락적 은둔의 대상인 명승지에 대한 기호가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수유락이 지식인의 교양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명승지의 은둔생활은 중국 위진시대 죽림칠현의 출현과 산수시를 유행하게 하였다(Obi kouichi, 윤수영, 1988).

#### IV. 결론

명승유연의 개념을 통해 명승의 실체를 분석한 결과, 명승은 자연경관과 사상이 복합된 개념이며, 명승을 기행하고 그를 사경하는 관습을 통해 회화, 문장 등 문인 문화가 발전하게 되며, 이는 명승의 실체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명승은 구곡과 팔경 등 연속적 경관으로 표현되며, 명승에서의 행태는 문인들의 계획, 기행, 은둔 등을 통한 시서화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1. 우리의 고유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을 보전하는 위원회가 과학계와 문화계의 명사들로 구성된 교학국 내에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명승고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인심이 등한한 행동의 난잡으로 행폐되는 고적을 중수 보전하는 한편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고적보존강조주간에는 라디오와 신문 등으로 일반의 관심을 돋우기로 되었다(조선일보 1946년 4월 13일자 보도).

주 2. 아름다운 계곡이나 동굴 속 세상.

주 3. 도교에서 신선이 모여 사는 땅으로 산천이 수려한 곳을 일컬음.

주 4. 외국인 험버트의 말을 인용해 보면 한국인은 공원 혹은 장식한 공원의 장소에는 관심이 없고, 경치 좋은 산록을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남산을 비롯해서 도시 근처의 산들과 경치가 좋은 계곡, 계류 명승지가 이른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도시민의 놀이터로 이용되었으며, 귀천불구하고 널리 이용되어, 꽃나무를 식재하기도 하고 수목의 보호에 힘써, 고래로부터 전해져온 생활문화 공간이었다(강신용, 1995). / 한국에는 매우 매혹적인 경치들이 많이 있고 간단한 등산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으며(중략)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산책하기 좋은 곳들이 많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눈을 매혹할 전경들을 발견하게 된다. 눈여겨 보면 방향과 계절에 상관없이 기묘하고 흥미로운 장관을 보게 된다(G. W. 길모어, 1892, pp. 215-216). 조선 사람들은 지나치게 언덕을 좋아한다. 그 결과, 남산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휴양지가 되었다. 봄, 여름, 가을 중 거의 화창한 날에는 작은 무리들이 산을 넘어 거닐거나 나무 아래 누워서, 때로는 도시의 벽에 기대앉아 남쪽의 강의 경치를

## 인용문헌

- 즐거는 것을 볼 수 있다(G. W. 길모어, 1892). / 서궁의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시대부터 고려인은 분디 글을 알아 도리에 밝으면서도 음양설에 얽매었던 까닭에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산세와 지세를 관찰하여 장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이라야 자리를 잡는다(고려도경).
- 주 5.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활발하게 만든다. 거처하는 곳에 이러한 산수가 없으면 사람을 조야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힌 곳이 많다. 사람이 집을 버리고 지렁이처럼 흙을 먹고 살 수 없는 이상에는 산수의 아름다움만을 취하여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차라리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지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장소를 택하여 거처를 정한 다음에 10리나 20~30리쯤 떨어진 곳에 명산과 아름다운 내가 있는 땅을 매입한다. 그리하여 흉이 일어날 때는 때때로 그곳을 찾아가 노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지속할 만한 방법이다. 옛날 주자는 무이산의 산수를 좋아하여 계곡과 물굽이, 산봉우리와 산언덕에 대하여 갖가지로 묘사하고 찬사를 바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집을 장만하여 산적은 없다. 다만 봄날에 그곳에 이르면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서로 엉켜 있어 절로 나쁘지 않다고 말하였다. 아야 말로 본 받을 일이다(팔역가거지-이중환의 택리지를 일컬음).
- 주 6. 산수를 바라보며 즐겁게 음미하는 의미로 산수유락과 일맥상통함.

1. 강신용(1995)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도서출판 조정, 서울.
2.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명승의 현황과 전망,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
3. 민주식(1986) 풍류도의 미학사상, 미학11. 한국미학회.
4. 박은순(1999) 19세기 초 명승유연과 이방운의 <사군강산참선수석(四郡江山參儔水石)> 서화첩 溫知論叢, 5(1).
5. 서궁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2005) 고려도경. 서해문집. 서울.
6. 서신혜(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경기도 파주.
7. 안대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파주시.
8. 이태호(2010) 옛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서울.
9. 조한욱(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서울.
10. 최석태(2001) 조선의 풍속을 그린 천재화가 김홍도. 아이세움. 서울.
11.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서울.
12. G.W.Gilmore(1892) Korea from its Capital. Jipmundang.
13. Obi kouichi, 윤수영 역(1988) 중국의 은둔사상. 강원대학교 출판부. 춘천.